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 마을리더 양성교육 모집

도시재생 첫걸음,
함께
시작해요



우 리 는
도 시 재 생
마 을 리 더



모집대상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여수시민(25명 내외)
모집기간	2021. 4. 26. (월) ~ 5. 7. (금) / 12일간 * 교육생 발표 : 5. 14. (금) / 선정자 개별통지
교육기간	2021. 5. 17. (월) ~ 5. 27. (목) / 매주 월, 목요일 총 4회차 진행
교육장소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2층 교육실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2층 / 여수시도시재생지원센터 (E-mail) dew9523@korea.kr
문의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61-659-2103) ※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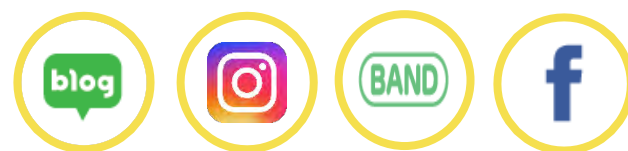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2층

운영시간
09시 ~ 18시

문의전화
061-659-2110

SNS



‘여수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되살림

Vol.24

도시를 보는 새로운관점
도시재생

발행일 2021.04.23

CONTENTS

2 ... 3

2021 여수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새가족 소개

4

국동지구
주민협의체 정기 월례회의
한려지구
주민협의체 회의

5

충무지구
건강한 꾸러미 체험
도성마을 공모선정

6

마을리더양성교육 모집
센터 이전 및 오시는길



충무지구 사업지 내 사진



2021 여수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새가족 소개

문수지구 현장지원센터

정선옥
마을활동가



문수동 소미 부락은 제 부모님 고향이고 저의 본적지이기도 합니다.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애착과 정이 가는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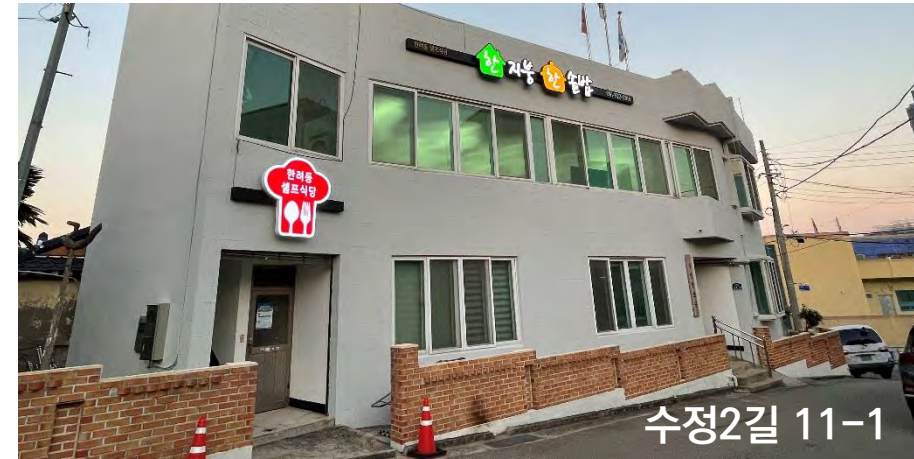
문수지구 활동가로 일한 지 약 3개월이 넘어 갑니다. 문수지구 현장지원센터는 고려 어린이집과 가깝게 위치해있습니다.

오전이면 복작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을을 돌며 앞으로 변해갈 새로운 문수지구를 그려보곤 합니다. 집수리 사업에 이어 어울림센터, 청년창업센터, 쌈지공원 조성 등 지금은 삭막한 공사현장일지라도 미래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활기가 돈는 문수지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환경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호흡을 맞추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북2길 32-1



수정2길 11-1

한려지구 현장지원센터

최선우
마을활동가



LH 도시재생뉴딜 인턴으로 10월 말 들어와서 약 4개월 동안 일하다 이번 3월에 마을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도센 블로그나 소식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 얼굴이 낯설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실물은 사진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하하)

인턴이 아닌 마을활동가라는 직책이 어색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요즘입니다. 작년 소규모 재생사업 한지봉한솔밥 공유부엌에 이어 올해부터 한려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돌봄주택부터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조성까지 새로워지는 한려지구가 기대됩니다.

새로워진 한려지구 만큼 저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이 피어나는 마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화지구 현장지원센터

서연희
마을활동가



주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 공공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유연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임시 사랑방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조직화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과 지원센터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화합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 소득사업에 대해 종화마을에 가장 어울리고, 주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처럼 종화마을의 아름다운 협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안전한 마을, 사람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종화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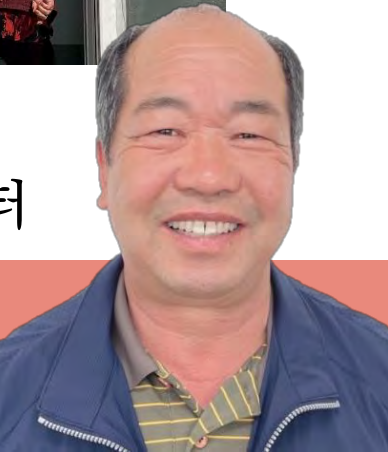
종화2길 18



봉계1길 56-2

주삼지구 현장지원센터

박형순
마을활동가



저는 봉강마을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새뜰마을조성사업을 한다가에 직접 마을활동가가 되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마을을 잘 아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더불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주삼지구 현장지원센터

김찬희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가 되기 이전에 여러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해보며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주삼지구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며 주민분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의견들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삼지구 새뜰마을사업이 다른 마을의 선진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동지구 주민협의체 정기 월례회의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수료
/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평생학습관



한려지구 주민협의체 회의

한려지구 도시재생을 향한 출발
/ 한려동 한지봉한솔밥 공유부엌

4월 8일,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국동 주민분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기 월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0년 법무부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식을 간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직후 최처중 수석 부위원장이 현재 까지 추진된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설명 하였고 이어서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장준배 문화예술 분과장이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장기 불참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과별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인구 대교동 부위원장은 “새로 지어질 어울림 센터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어 함께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라고 새로운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3월 18일, 한려동 한지봉한솔밥 공유부엌에 도시재생정비팀 김명근 팀장과 주민협의체, 오동동 협동조합, 기초센터, 현장센터 총 16명이 한려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사업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부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 공방,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조성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사 예정지 33가구는 보상완료 되었고 4월부터 철거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 돌봄 여건 조성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4월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 거리는 벽면 스케치 및 디자인이 완성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꾸러미 체험 프로그램은 충무새뜰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충무새뜰협동조합 회원들의 주도하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체험 시작 직전에는 주민들이 만든 생강 청과 천연 비누 등 상품들을 전시하여 협동 조합 및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습니다.

3월 24일은 종화새뜰 주민협의체 (14시), 국동 도시재생 뉴딜협의체 (15시), 주삼새뜰 주민 협의체 - 월양마을 (16시) 에서 체험을 진행하고, 3월 25일에는 한려동 오동동 협동조합 (14시), 문수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참여단체 (15시), 주삼새뜰 주민협의체 - 봉강 마을 (16시) 에서 각각 오일에센스와 누룽지 초콜릿 체험을 5인씩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서로의 마을에 대한 사업이야기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대통령 직속 균형 발전 위원회의 공모 에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지로 울촌면 도성마을이 3월 4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수용소의 완치 환자들이 1976년에 정착하며 형성된 한센인 정착촌으로 58가구 130명이 거주하며, 주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가 57%로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슬레이트 건물과 폐촉사, 창고 등 오랜 기간 방치 되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시는 향후 4년간 도성마을에 총 22억 원 (국비 15억, 지방비 7억) 을 투입해 폐촉사 등 혐오시설 정비, 협소한 마을안길 정비, 집수리, 마을 공동 시설 개보수, 방재시설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무지구 건강한 꾸러미 체험 프로그램

직접 만들어보는 기쁨
/ 충무새뜰 커뮤니티센터



도성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정주여건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 울촌면 도성마을